광주민간공항 이전 군공항 연계에…반발 거세지는 전남

전남도·의회·시민단체 일제히 유감 표명 "공항개발계획안 철회" 촉구

광주시의회 "국가차원 지원대책 제시…동반 성장·상생으로 해결해야"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의 통합 시기를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2021~2025년)을 두고 전남지역에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의회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5일 "정부의 기존 계획과 배치되는 공항개발 계획안"이라며 계획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놓은 데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도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면서도, 정부 계획안 원안 고수를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항 통합시기를 광주 군공항과 연계하는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전남도의회는 "국토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가 마치 민간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별개 사안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전남도-광주광역시-무안군은 지난 2018년 8월 20일,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국토부는 이 협약을 '지자체 간 합의'로 인정하고,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이라 명시하고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서 '연계 방침'을 담아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는 시·도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염원하는 200만 전남도민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전남사회단체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군 공항 이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을 항공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민간공항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두는 것은 기존 국가계획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지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남도의 입장은 (애초부터) 정해져 있다"며 "민간공항 통합 문제는 (군공항 이전 사업과) 별도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제3차 항공 기본계획과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까지는 (두 사안을) 연계시키지 않았다"며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같이 섞으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초 정부가 해왔던 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 민간공항 통합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동반 성장과 상생의 길로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국토부의 연계 방침은 지역 민심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갈등과 대립은 한 뿌리 공동체인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면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해법 모색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과 지역 의견 등을 감안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공항 문제로 인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김형호 기자 khh@

광주, 외국인발 코로나 확산세 우려

1076명 중 299명, 광산구 가장 많아…선제검사 집중

광주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지역사회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광주 확진자 1076명 중 299명(27.8%)은 외국인이었다. 272명은 지역 감염, 27명은 해외 유입 사례였다. 이 기간 외국인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날도 10일이나 됐으며 지난 2일에는 33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자치구별로 외국인 밀집 지역이 있는 광산구가 2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구 27명, 서구 13명, 남구 2명, 동구 1명이었다. 우즈베키스탄(84명), 카자흐스탄(78명), 러시아(46명), 베트남(32명) 국적이 다수였다.

주요 집단 감염 경로를 보면 예배당에서 27명(내국인 1명 포함)이 확진된 뒤 물류센터 54명(내국인 12명), 광산구 3개 사업장으로 확산해 모두 98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이 밖에도 모두 6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3명에서 20명까지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류소연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일부 직장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역학조사에서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선제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고용 사업주,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인 협력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는 길이라는 걸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다만 추석 연휴기간 동안 외국인의 집단모임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홍보 등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에서는 광산구 외국인 집단 감염 관련 2명, 광산구 물류센터 관련 2명, 기존 확진자 관련 1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2명 등 모두 7명이 신규 확진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추석 앞두고 긴급민생자금 204억 지원

영세 자영업자 경영회복·취약계층 생계지원·긴급돌봄 등

전남도는 1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등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예산 204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거나 피해가 심각한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영세 자영업자 경영회복 지원, 농·축·수산물 등 소비 촉진, 취약계층 생계지원, 방역물품 지원 등 상생을 위한 긴급 돌봄 등이다.

특히 승객 감소 등 경영난에 처한 시외버스 5개사, 농어촌버스 45개 사에 총 60억원을, 장기간 국내외 여행 제한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도내 여행업체 560개소에 200만원씩 모두 1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태권도, 풋살장 등 민간 체육시설과 공연업체, 뷔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업시간이 제한된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등 총 4236개 사업장에 100만원씩 총 42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정부 지원에도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로 소득이 급감한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클럽 등 유흥시설 2300개소에는 총 11억5000만원을 들여 50만원씩 준다.

경기침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자에도 사회보험료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사업장 9900개소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중 정부 지원 80%를 제외한 20%인 2만4000원을, 1인 자영업자 900명에 대해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자부담분의 30%인 최대 4만5000원을 보조한다.

정부 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생계 위협 취약계층 대책도 마련했다. 각종 공연, 전시회 등 미개최로 생계가 힘든 예술인에게 50만 원씩, 5차 정부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한부모가족과 백신접종 사후관리 등 돌봄 업무 급증에도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노인생활지원사에게 10만원씩을 지원한다.

농어민·소상공인 소득 확대를 위해 전남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20억 원 규모 할인쿠폰을 발행, 전남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하고 확진 사례가 많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식품 접객업소에 방제복, 마스크 등 21억원 상당 방역물품을, 밀집도가 높은 가축시장, 농기계임대사업소 등에 체온계, 소독제 등 9억원의 방역물품을 제공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 교환
하실 분. 010-3605-5000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北 발사체 보고 청취…NSC 상임위 개최

왕이 中국무위원 접견…한반도 비핵화 평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는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40여분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18년 평창에서 시작한 동북아 3국 릴레이 올림픽이 2022년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며 "베이징올림픽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왕이 부장은 이에 대해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한다"며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왕이 부장은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발전을 언제나 지지하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층간소음에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침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쿠팡 광주 물류센터 오픈!
계약직 사원 모집
쿠팡 광주 물류센터는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근무시간	주간 : 09:00 ~ 18:00 야간 : 19:00 ~ 04:00 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
급여조건	주간 : 192만 + @ 야간 : 240만 + @ 연장, 특근 발생 시 추가 지급
통근버스	광주 전 지역 운행
복리후생	퇴직금, 연차, 단체상해보험, 명절 선물, 경조 지원, 식사제공
업무	물류(입고, 출고, 재고) 지게차/허브(분류, 상하차)
지원자격	성별 및 학력 무관 성년인 자 [단, 정년(60세) 미만인 자] 초보 가능, 주부 가능, 동반 입사 가능

문자 or 전화지원 : 010-9664-1299
광주센터/희망 근무조/성함/생년/전화번호/근무가능기간
예시) 광주센터/주간/홍길동/1970/010-1234-5678/3개월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평안전기(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명서전기(이하"을"이라 한다)은 2021년 09월 12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 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익일로부터 1개월내에 본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21년 09월 16일

"갑"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347 나동 2층(연제동)
회 사 명 : **주식회사 평안전기**
대표이사 : 김 안 식
"을" 주 소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1로 14, 2층
회 사 명 : **주식회사 명서전기**
사내이사 : 김 명 자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1. 09. 14. 임시사원총회에서 자본금 금60,000,000원(발행출자좌수 6,000좌/좌당액면가액10,000)중 1,200좌(자본금 12,000,000원)를 감소하여 4,800좌(자본금 48,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써 발행출자좌수 6,000좌 중 1,200좌를 희망하는 사원으로부터 매수하여 유상소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16.

유한회사 신흥냉장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13-1(금화동)
대표이사 김정순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435 (2020전고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 피고인 : 박도형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죄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사실 중 피해자 최영숙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년 9월 14일

광주지방법원 제 11형사부(합의)
판사 정 지 선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백종수(950923-XXXXXXX)
• 최후주소 : 여수시 소호로 658, 105동 1203호 (학동, 부영아파트)

피상속인 망 백종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느단415호로 신청하여 2021년 8월 2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9월 16일

• 상속인 : 백승엽(670506-XXXXXXX)
여수시 소호로 658, 105동 1203호 (학동, 부영아파트)
• 신고기간 : 2021. 9. 16. ~ 2021. 11. 25.
• 채권신고처 : 여수시 망마로 42 장수B/D 3층 변호사 채진화

산행안내
9월26일(일)
▲광주kj산악회 9월26일(일) 충남 보령&오서산 산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주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69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북광주 525-3761 • 양 산 571-7658 • 용 봉 433-1503	• 문 흥 266-1960 • 신 안 222-8171 • 오 치 266-7601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부 225-6001 • 충 장 222-8171	• 동 명 222-9054 • 중 앙 222-9054
남 구	• 남 부 673-6836 • 봉 선 673-6836 • 진 월 671-7276	• 백 운 651-1833 • 송 하 675-6605
서 구	• 광 천 382-5788 • 서광주 369-1625 • 치 평 376-6511 • 화 정 369-1625	• 상 무 372-2352 • 운 천 376-7153 • 풍 암 603-0311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첨 단 973-2900 • 광 산 944-0444	• 월 곡 959-1920 • 하 남 955-0451